

6월 21일 수업

요나단과 다윗 - 신실한 친구들

핵심 구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둘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와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하였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다.”

사무엘상 20:42

선별된 성경 구절:

사무엘상 18:1-9; 19:1-7; 20:1-42

수 세기 동안 사사들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왕이 갖춰야 할 자격을 제시하셨다(신명기 17:14-20). 사무엘은 사울 치하의 왕국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나중에 사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빼앗길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 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13,14). 또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를 기름 부어라.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 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12,13)

이 기름 부음의 결과로, 다윗에게는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동시에 사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왕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게 하여, 고통받는 왕에게 음악으로 위안을 주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봉사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자신의 무기 담당자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6:14-23

이 일련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결과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베푸는 위대한 봉사에 보인 반응이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로 통했고, 요나단은 그를 자기 영혼처럼 사랑했다. ...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였으므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사무엘상 18:1, 3). 이처럼 우리는 본문 구절의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상호 사랑에 기초한 우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정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 백성들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8:7) 사울은 격분하여 다윗을 모해할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자, 사울은 그를 제거할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사무엘상 19:1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으며, 네 아들 중 장남으로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최우선 충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요나단은 사울에게, 조국에 귀중한 공로를 세웠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나단의 말은 성급한 성미의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울은 맹세를 통해 적대적인 뜻을 접겠다고 약속했다(사무엘상 19:6, 7). 이처럼 요나단의 중재로 일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다윗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로 돌아갔다.

앞서 살펴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 귀중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13